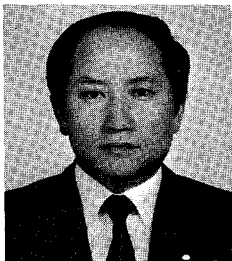


海外協力 增進을 위한 提言



吳 桂 洙
韓國生産性本部 經營資料室長

86년은 3저현상 즉 유가하락, 국제금리 인하, 美弗貨 약세 등의 호기로 수출 및 내수산업 전반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예견되는 선진 각국의 보호장벽으로 국내 업계에서는 해외 현지 체제의 신시장 개척, 적극적 로비 활동, 수출선 다변화, 부품산업의 기반 육성,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검토·연구해야 한다.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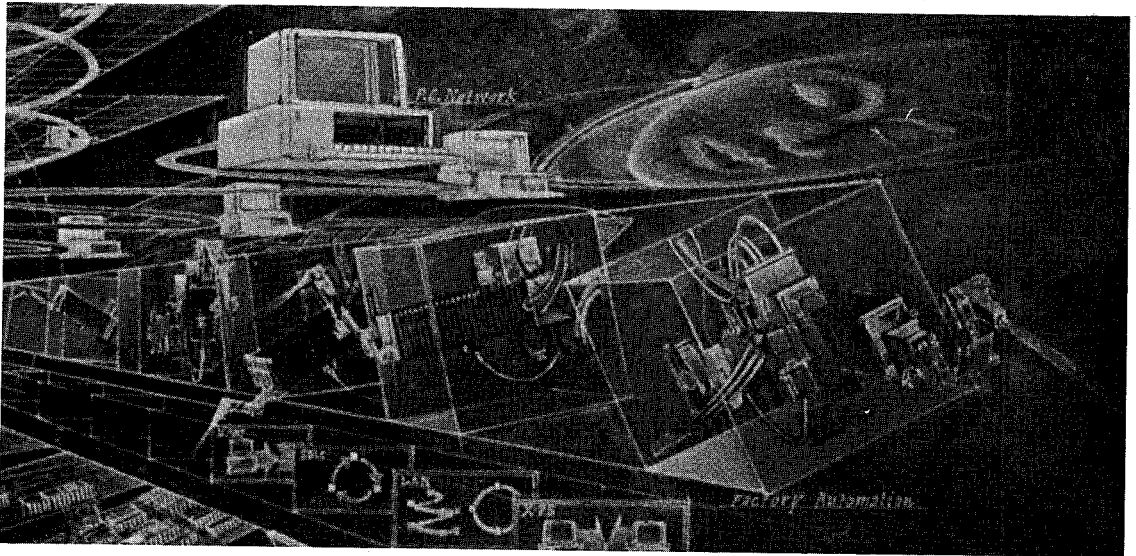
'86년은 벅두부터 이른바 3低現象(油價下落, 國際金利 引下, 달러貨 弱勢)의 강한 氣流를 타고 非産油國인 開發途上國들로 하여금 長期成長의 基盤造成을 위한 好機로 삼아 다각적인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게 한 한해였다. 한편 선진국들은 自國經濟를 保護하고 貿易收支改善을 위해 保護主義를 내세우고 主要 交易對象國에 대한 市場開放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与件下에서도 우리 經濟는 12%라는 놀라운 成長을 기록했고 특히 電子工業은 어떤 産業보다도 높은 成長을 한 한해였다.

日本의 円貨 強勢로 價格競爭力이 강화 됨에 따라 급속한 伸張을 보인 지난해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전체 生産을 보면, 内需販賣는 小幅에 그칠 것이나 輸出 需要가 크게 늘어나 '85年度の 73억弗보다 약 17.2% 增加한 85억弗 규모에 이를 것으로 展望되며 部門別로는 家庭用 電子機器가 11.7% 증가한 27억弗, 産業用 電子機器가 22% 증가한 18억 5,000만弗, 電子部品이 19% 증가한 39억 9,000만弗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電子製品 輸出이 53억 3,000만弗에 이르러 '85년도의 43억 3,000만弗보다 23%가 증가하여 전체 電子景氣를 이끌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円貨 強勢로 인한 輸出의 增加와 先進國들의 景氣好調에 힘입은 바 크며 이러한 伸張勢는 당분간 계속될 展望이다.

2. 家庭用 電子機器

그동안 우리나라 電子工業 發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家庭用 電子機器部門은 黑白TV, 오디오製品 生産으로 内需基盤을 획득하고 거듭된 技術蓄積으로 '80年처 컬러TV시대를 맞이하기



3 저현상으로 호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도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이 部門은 컬러TV, VTR, 전자렌지, CDP 등에 의해 지속적인 成長을 계속할 것이나 先進國들의 輸入規制가 강화될 것이 예상되고 높은 間接稅率과 오디오 및 비디오 分野의 소프트웨어 産業이 크게 活性化되지 못해 內需增大에 어려움이 있어 電子産業中 他部門에 비해 소폭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展望된다.

主要品目別로 살펴보면, 그동안 先進國의 輸入規制로 부진했던 컬러TV는 改替需要의 誘發과 市場의 多邊化, 機能의 多樣化 등으로 需要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1년부터 본격적인 生産에 들어간 VTR은 '85년부터 輸出需要로 因한 기록적인 成長勢로 '85년에 3억1,700만弗의 生産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年平均 30.3%의 高成長을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國內外 需要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오디오 製品은 이제까지의 趨勢와는 달리 앞으로는 AM스테레오화, Digital化, AV 시스템化, HiFi化 등의 영향으로 年平均 11.0%의 높은 成長率을 나타낼 것으로 展望되고, 단시간에 調理가 가능하고 주방의 청결을 強점으로 최근 輸出需要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電子렌지는 大量生産에 따른 價格引下로 需要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 産業用 電子機器

産業用 電子機器는 余他 電子工業部門에 비해

高度의 핵심기술이 요구되는 技術集約的 産業이며, 그 使用範圍도 다양한 高精密性 産業이지만 國內 技術水準은 몇개의 品目を 제외하고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80年代에 들어와 이 部門은 '85년까지 年平均 33.1%의 高成長을 해 옴으로써 우리나라 電子産業이 지속적으로 發展해 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빠른 成長을 주도했던 分野는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이다.

최근 컴퓨터와 光電子, 通信裝置 등의 生産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電子産業 전체 生産額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가고 있는데 生産額은 '81년의 4억 9,400만弗에서 '85년의 15억 1,800만弗로 4年 동안에 무려 3.1배나 增加되어 電子産業 전체 生産에서의 비중도 13%에서 20.1%로 크게 提高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增加趨勢는 계속되어 우리나라 電子産業도 점차적으로 産業用 電子機器 中心으로 바뀌어 나갈 展望이며 '91년의 生産額은 63억 8,400만弗로 예측되고 있어 그 비중은 32%나 차지하여 家庭用 電子機器에 27.8%나 상회할 것으로 展望된다. 電子製品중 附加價值가 높고 技術集約的인 이 部門의 發展은 情報産業社會에서 필연적인 결과이며 生産性을 향상시키기 위한 事務自動化(OA) 工場自動化(FA)를 遂行해 나가기 위해서도 계

속 발전할 것이며 또한 凡國民의인 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이를 主要品目別로 살펴보면 컴퓨터가 '81년 3,100만弗에서 '85년 5억 1,900만弗을 기록하여 年平均 102.3%의 높은 成長率을 보였으며 向後 '91년에는 29억 2,000만弗로 예측되어 年平均 33.4%의 성장을 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리하여 産業用 電子機器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1년 6.3%에서 '85년 34.2%, '91년에는 46.0%로 提高되어 産業用 電子機器를 主導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交換機는 向後 23.3%씩 成長할 것으로 보여 '91년에는 11억 7,400만弗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電話機는 29.1%씩 증가하여 889만弗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컴퓨터를 비롯한 産業用 電子機器의 需要增大 원인은 하드웨어 則面에서의 小型化, Personal化, 低價格化 등에 의한 것이며 소프트웨어 産業의 본격적인 育成으로 컴퓨터 利用 分野가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한 S/W需要도 계속 增大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아울러 데이터베이스 産業을 비롯한 情報處理 서비스業이 活成化되면서 FA, OA, SA, HA 등 産業社会 전반의 情報化가 가속적으로 확산되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産業用 電子機器 輸出은 '81년에 1억 2,500만弗에서 '85년에는 7억 8,300만弗로 年平均 58%라는 기록적인 伸張을 해 옴으로써 이 分野의 輸出이 電子 全体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5.4%에서 17%로 크게 提高되었다.

이처럼 輸出이 크게 늘어난 까닭은 컴퓨터 및 電話機 등의 輸出이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 分野의 世界市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向後 '91년에는 43억 1,600만弗로 예측되며 年平均 32.9%라는 놀라운 成長을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4. 電子部品

英國의 Mackintosh 年鑑에 의하면 1986年 電子市場 規模는 약 3,624억弗에 이를 것으로 展

望되며 1983年에서 1986年사이 7.5%의 成長을 展望하고 있다. 이 가운데 部品市場은 年平均 9.4%씩 成長하여 電子市場 중 약25%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표 1 부문별 세계시장 규모

단위 : 10억弗, %

구 분	1977	1980	1983	1986	연평균증가율 (1984-1986)
가정용전자기기	25.6	38.4	45.5	51.6	4.3
산업용전자기기	72.1	148.4	177.3	220.2	7.5
전자부품	30.9	55.8	69.2	90.6	9.4
합 계	128.6	242.6	292.0	362.4	7.5

자료 : Mackintosh

이와 같이 電子部品 市場은 지속적인 高度成長을 기록, 電子市場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계속 높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趨勢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電子部品の 世界市場 動向은 電子部品の 特性和 그 趨勢를 살펴봄으로써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輕薄短小化의 傾向이다. 이는 그동안 에너지 위기에 따른 自救策으로서 에너지 低消費 形態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작은 것이 좋다」라는 슬로건과 小形化에 대한 社会的인 요구가 일치한데서 따른 것이다. 이러한 趨勢는 앞으로도 계속될 展望이다.

둘째, Life Cycle의 短期化의 傾向이다. 이 傾向은 지속적인 電子技術 發達의 結果로 技術革新이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또한 電子製品에 대한 需要가 다양해지고 擴大됨에 따라 需要者의 立場에서 보다 많은 機能을 요구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供給者의 市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Life Cycle은 加速的으로 短期化될 것이다.

셋째, 製品의 多機能, 多樣化의 傾向이다. 이 傾向은 앞에서 본 두가지 傾向과 無關하지 않은 것으로 製品의 小形化에 따라 예전에는 한가지 기능만을 부착시킬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여러가지 機能을 겸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市場이 확대됨에 따라 需要者의 층도 多樣化하게 되어 이것이 지속적인 새로운 需要의 創出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部品の 輸入化를 억제하기 위해선 部品産業을 위한 支援과 長期的인 育成이 필요하다. 즉 「国内 電子部品 産業이 国内 電子産業의 기반이 되고 동시에 輸出産業化해야 한다」

이 점은 우리나라 電子産業이 갖고 있는 二重構造的 모순이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国内 電子製品의 國際競爭力 向上은 바로 기반이 되는 관련 部品産業의 育成下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半導體

半導體 技術을 先導해 온 美国, 日本에 비해 이십여년이나 늦게 출발한 国内 半導體産業은 業界 및 政府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256KDRAM, 1MROM 開發 등으로 先進半導體國과의 技術 隔差를 1년여로 좁혀 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간격의 의미는 製造技術 分野에 국한된 것이며 回路設計分野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世界 半導體 消費 予測

단위 : 百万弗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CAG% ('84~'90)
MOS (Technology)	8,013	12,967	11,059	14,348	20,348	26,867	27,881	35,379	18.2
NMOS	5,445	8,818	7,299	8,637	11,110	12,627	11,013	11,321	4.3
PMOS	361	373	254	201	203	188	112	106	(18.9)
CMOS	2,207	3,776	3,506	5,510	9,035	14,052	16,756	23,952	36.1

資料 : DATAQUEST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半導體 技術은 점층적으로 消費電力이 과다한 NMOS에서 消費電力이 낮고 잡음여유도가 높으며 設計가 용이한 CMOS技術로 轉換趨勢에 놓여 있다. 전체 MOS 半導體 중 CMOS製品이 '85년 61%에서 '90년에 이르러 79%를 占有할 것으로 展望된다.

世界 半導體 需要를 보면 '84년 259억弗에서 半導體 景氣沈滯로 '85년에는 4.3% 감소한 248억弗에 그쳤다. 그러나 '85년말부터 일기 시작한 世界景氣는 半導體 市場에도 活氣를 불어넣어 '86년 世界市場 규모는 13.8% 增加한 282억弗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이러한 半導體 市場의 回復趨勢는 PC市場의 점층적인 活氣 및 System 業체의 在庫消盡, 半導體 生産業체의 生産減縮 등으로 半導體 需給 均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혹독한 반도체 경기 불황 및 日本의 반도체 덤핑 판매 등으로 價格競爭力이 크게 약화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던 国内 半導體 産業도 최근들어 世界的인 반도체 회복추세와 더불어 美国의 日本 半導體에 대한 덤핑 판정과 円貨 強勢 등이 새로운 요인

으로 작용하여 반도체 회복추세를 加速化시킬 展望이다.

6. 市場擴大를 위한 提言

첫째, 海外 現地法人 및 工場을 확대시켜 各國의 保護貿易 障壁에 대처할 수 있는 方案과 이에 따른 輸出增大를 모색하고 少量注文이라도 회피하지 말고 新市場 개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漸増하는 海外 輸出需要에 부응하기 위해 海外에 常設 아프터 서비스網을 갖추어 消費者들의 불만요소를 없애도록 하여 간접적인 製品宣傳 效果를 提高시켜야 한다.

셋째, 安定的인 海外市場 確保를 위해서 輸入 商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활발한 廣告活動을 통하여 새로운 需要를 創出하고 輸入規制에 의한 需要의 減少를 방지하기 위해 對外 로비活動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48%~50%에 이르는 美国市場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럽, 아프리카, 中東, 東南亞 등

輸出市場의 多邊化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電子部品産業의 기반을 確固히 하는 것이 長期的이며 間接的인 海外市場 擴大의 길 이기에 모처럼의 好機의 期間中에 電子部品産業의 政策的 育成과 綜合的 노력이 더욱 요망된다. 擴大되는 海外部品市場에서 比較優位 部門에 進出할 수 있고 現地生産業체와의 協力 및 現地工

場 設立의 契機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여섯째, 長期的인 産業育成의 관점에서 産業 構造 合理化를 위하여 技術 전체로서의 体系化를 도모하고 大企業과 零細業체間的 Bottle Neck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